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월화극 '공부의 신' 카리스마 선생님 김 수 로

"꼴찌들에게 용기·희망 주고 싶다"

'막장 드라마'가 판치는 브라운관에 단비 같은 작품이 등장했다.

지난 4일 첫선을 보인 KBS 2TV 월화극 '공부의 신'이다. 괴짜 변호사 강석호가 오합지졸 고3 수험생 5명을 최고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나선 이야기를 그린 '공부의 신'은 신선한 스토리, 빠른 전개와 함께 강석호의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쿨한 리더십으로 방송 3회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했다.

"제게는 첫 드라마인데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부디 지금의 분위기를 잘 유지해 마지막 16회에서는 전국의 모든 꼴찌에게 진한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강석호 역의 김수로(40)는 12일 연신 싱글벙글이었다. 데뷔 12년 만에 처음으로 출연하는 드라마라 은근히 걱정이 됐는데, 금세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경쟁작들을 멀찌감치 따돌렸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제가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일이 잘 됐는데, 올해도 그런 것 같아요.(웃음) 2006년 영화 '흡혈형사 나도열' 개봉 때 첫주에 70만 명이 들었을 때의 느낌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제 시작했으니 앞으로 16회까지 점점 더 많은 호응을 얻어야겠다는 부담도 들어요. 어느 한 회도 '별로였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영화와 달리 시청자들의 반응이 즉각 즉각 오니까 신나네요."

사실 '공부의 신'은 MBC와 SBS에서 별반 경계하지 않았던 작품이다. '애들이나 볼 것'이라 치부했던 것. 그러나 이 드라마는 학생과 학부형이 함께 보며 인기를 얻고 있다.

> "'공부해야겠다'는 소감 드라마 게시판에 쇄도 가슴에 꽂히는 대사 많아 학생들 공부의욕 생길 것"

"보통은 '공부해라'고 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공부를 해야하는 타당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펼쳐놓으니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이어도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10분 공부할 것을 1시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의욕을 북돋우고 자극을 주는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드라마 게시판에도 '공부해야겠다'는 소감이 쇄도하는 것을 보면서 드라마 한 편이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느끼게 됐어요. 덩달아 제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공부의 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에 도전 중이다. 파산 위기에 처한 고등학교의 청산하는 실무를 맡은 변호사 강석호가 청산이 아니라 학교의 재건 프로젝트를 내놓는데, 그것이 꼴찌, 반항아, 둔재 등을 모아놓고 최고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것이다. 다분히 판타지적이지만, 잘못하면 '명문대 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이 드라마는 꼭 명문대에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에 공부가 왜 필요한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을 해놓고 개성을 살리는 것과 기본도 없이 자기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학생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번쯤 해봐라. 그런 후 너만의 개성을 살려봐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꼴찌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로 코믹한 연기를 선보였던 김수로에게 강석호는 역대 최고 좋은 직업의 캐릭터다. 옷도 매 신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온다.

"지금 똑같은 양복 두 벌을 넥타이만 바꾸며 번갈아 가며 입고 있어요.(웃음) 양복을 입으니 확실히 자세도 달라지네요.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 중 가장 좋은 직업인 데다 코믹 연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과거 작품들과 차별화돼 좋아요. 제가 원래 '빌리 엘리어트' 류의 휴머니즘이 강한 작품을 좋아하는데, '공부의 신'이 딱 그렇습니다. 가슴에 꽂히는 좋은 대사가 너무 많고, 앞으로 감동적인 장면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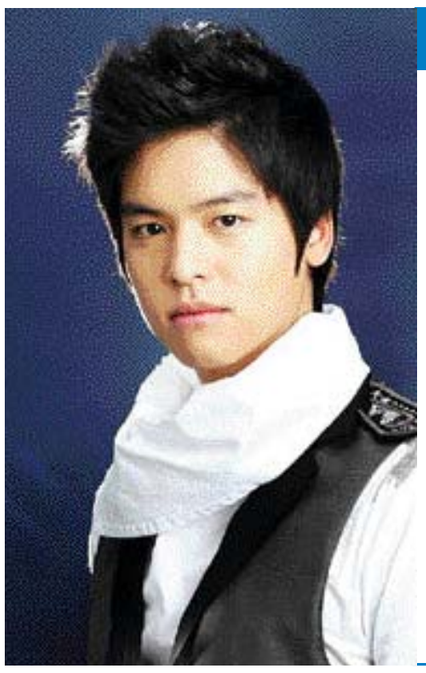
영화 '울학교 E.T.'에서도 교사를 연기했던 그는 "'울학교 E.T.'의 천성근도 좋은 선생님이다. 그런데 천성근과 같은 선생님은 현실에도 많을 것 같다면, 강석호 같은 선생님은 정말 현실에 나타나줬으면 하는 인물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승우 토크쇼 MC로 다음달 초부터 방영

배우 김승우가 KBS에서 자기 이름을 내건 토크쇼 '김승우 쇼'(가칭)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KBS 예능국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달 초부터 '김승우 쇼'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녹화는 이달 말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김승우씨는 입담도 좋고 대인관계가 폭넓어 작년부터 소속사와 토크쇼 진행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포맷이나 첫 초대손님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말극 '수상한 삼형제' 열혈 형사 이 장 우

"이 드라마 끝나면 한 뼘 성장해 있을 것"

"설마 백마탄이 여자 돈을 계속 뜯어먹겠어요? 모르긴 해도 나중엔 이름값을 하게 될 겁니다.(웃음)"

KBS 2TV 주말극 '수상한 삼형제'에서 백마탄을 연기하는 신예 이장우(24)는 이렇게 말하며 앞을 기약했다.

'백마탄 왕자'라는 말에서 '왕자'라는 단어를 생략한 듯한 이름인 이 캐릭터는 '수상한 삼형제'에 등장하는 여러 '수상한' 인물 중에서도 가장 정체가 베일에 싸여 있다. 경찰대를 졸업한 능력 있는 열혈 형사지만, 잘 생긴 외모를 이용해 여자 돈을 뜯어먹는 인물로 비치는 그는 속을 알 수가 없다.

"백마탄이 지금은 부영(장다윤 분)에게 사사건건 외상을 지지만 그게 진짜 부영이 돈을 뜯으려는 것이겠어요? 물론 대본이 나와봐야 알지만 제 생각에는 백마탄이 부영이를 길들이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봐요.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남자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남자의 돈을 뜯어내려는 여자들을 경계해 일부러 부영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해 MBC 시트콤 '태희혜교지현이'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연예인 지망생 역으로, 이 캐릭터에 맞게 당시 트웬티포세븐이라는 프로젝트 그룹도 결성해 활동했다.

"외동아들이라 어려서부터 혼자서 노는 데 익숙했는데, 혼자 놀면서 주로 하는 일이 역할 놀이였어요. 그게 자라면서는 연기에 대한 꿈으로 이어졌죠. 그럼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남 앞에서 연기를 한다는 것이 눈물 날 정도로 수치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수치스러움이 오기로 발전했고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수상한 삼형제'가 시청률 40%를 위협하는 덕분에 이 장우도 덩달아 요즘 인기 상승 중이다.

"시청률이 무섭네요. 예전 출연작은 비중도 적기는 했지만 이번 작품은 시청률이 높으니까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인지도 상승과 함께 그는 이 드라마를 통해 연기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다. '수상한 삼형제'가 연기 트레이닝에 혹독한 문영남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대본 연습할 때 눈물 쏙 빠지게 혼이 났어요. 그렇게 몇 회 지나면서 서서히 적응해 가죠. 요즘에는 작가님이 '네 나이에 맞게 귀엽게 한다"고 해 주기도 하셔서 기뻐요. 이 드라마 끝나면 한 뼘 성장해 있을 것 같아요."

/연합뉴스